

# 오대산 중대 사자암 불교회화 연구

정진희(국가유산청 문화재감정관실)

## 차례

- I. 머리말
- II.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과 중대 사자암(獅子庵)
- III. 중대 사자암 불화의 현황
- IV. 중대 사자암 불화의 조성 배경
- V. 중대 사자암 불화의 제작자와 도상적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오대산 가장 중심에 자리한 중대 사자암은 월정사의 산내 암자 가운데 하나이다. 신라 자장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 모셨는데 사자암은 적멸보궁을 관리하고 예불을 올리는 승려가 머무는 암자였다. 사자암이라는 명칭은 자장이 당나라에서 부처님 정골(頂骨) 사리를 사자에 싣고 돌아와 오랫동안 그곳에 주석하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이 논고에서 살펴볼 중대 사자암 불화는 <석가여래회도(釋迦如來會圖)>와 <신중도(神衆圖)> 2점으로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조선 후기 불화의 조성은 불상의 중수 또는 개금불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자암 불화 역시 같은 사례에 속한다. 사자암에서는 1894년 1월 초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하여 향각(香閣)에 모시는 불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초청되었던 화승들에 의해 그해 2월 비로자나불상의 후불도(後佛圖)로 사용될 상단(上壇)

불화 1점과 중단(中壇)에 모실 신중도 1점이 함께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 불화 제작의 인력 구성은 같은 법맥을 따르는 승려 문중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대기가 되면 문중이라는 인력 구성의 범주를 벗어나 같이 했던 화업(畫業)을 인연으로 형성된 화맥(畫脈)을 따르는 개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범본이 되는 불화초(佛畫草)를 공유하며 다양한 변용을 통해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는 사자암 불화에서도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의 제작을 후원했던 시주층이 오대산 주변에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민이 아닌 왕실 관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왕실 원당이었던 사자암의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이 불화들이 갖는 또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 중대 사자암에서 조성한 불화 <석가여래회도>와 <신중도>를 주제 삼아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불화의 현황을 알아보고 나아가 당시 불화를 조성했던 배경과 함께 제작을 맡았던 화승을 고찰해 19세기 말 지방 사찰에서 진행된 왕실발원 불화의 성격과 제작자의 특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 II.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과 중대 사자암(獅子庵)

오대산 중대 사자암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의 수호사찰(守護寺刹)이다. 오대산 중대를 비롯해 양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범흥사, 태백산 정암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 모두 643년 이후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귀국하며 직접 가져온 부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전한다. 부처님 사리의 전래와 그 신앙의 형태는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조의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사적기(事跡記)에서 사리를 신격화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sup>1)</sup> 오대산에 자장율사가 불사리를 모셨다는 내용은 소략하나마 민지(閔漬; 1248-1326)의 문헌 가운데 『오대산성병신라정신태자효명태자전기(五臺山聖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에 전한다.<sup>2)</sup>

1) 『삼국유사』, 권 3, 제4 塔像, <前後所將舍利>(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五臺山事跡記』, <五臺山聖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東有滿月. 西有長嶺. 南有猗麟. 北有象王. 中有地爐. 故曰五臺山. 而皆諸佛菩薩常住之處也. 昔者慈藏法師. 奉安佛腦及頂骨於中臺地爐峰. 茲是靈瑞間起冥衛巨測. 或至齋日時燭光明.”

신라시대에 오대산의 중대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기도처는 진여원(眞如院)이었는데 그 터에 새롭게 조성된 사찰이 상원사이며 산 정상 적멸보궁을 오르는 길에 자리한 암자가 사자암이다. 오대산은 조선 초부터 왕실에서 천재지변을 극복하는 법석을 베풀던 장소였고 중대 사자암은 태상왕 이성계가 원찰(願刹)로 삼아 국가의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여겼던 암자이다. 왕실에서는 사자암을 비롯해 오대산의 사찰들을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할 때마다 이곳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품은 성지이고 국가의 맥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명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권근이 지은 「사자암기(獅子庵記)」에는 이성계가 오대산의 영험한 기운을 선망(羨望)하여 원찰의 인과(引果)를 심고자 하였는데 각운설악(覺雲雪嶽)이라는 승려로부터 오래되어 터만 남았던 사자암이 예전에는 국가 비보사찰이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자암을 중건(重建)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3)</sup>

왕실발원 불사인 만큼 나라에서 기술자(工匠)를 보내 시작된 사자암 중건 공사는 그해 11월에 낙성되었다. 그 규모는 부처를 봉안하는 법당과 요사로 사용되는 3칸, 문과 목욕간으로 쓰였던 2칸 건물로 크지 않았다. 현재 태조 이성계의 후원으로 조성된 당시 사자암 전각을 볼 수는 없지만 조선 초기에 조성된 적멸보궁의 내부양식으로 추정해 보면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과 유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4)</sup>

권근의 기문에 의하면 태조가 사자암을 중건한 이유에 대해 먼저 간 사람들(亾子)의 명복을 빌고 복리(福利)를 후세에 미루어 물아(物我)가 다 같이 받고 유명(幽明)이 함께 힘입고자 함이라고 하였다.<sup>5)</sup> 이성계에게 사자암 중건을 상소했던 각운설악은 나옹선사의 제자로 권근, 목은 이색과 교류가 있던 승려이다. 나옹이 머물렀던 오대암에 자리한 사자암의 조선 초 중건은 나옹대사의 법맥을 따르는 문도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1400년 중건 당시 사자암은 중대를 오르내리는 사람이 모두 거쳐 가는 곳으로 적멸보궁의 수호사찰이었다. 공사가 완

3) 탁효경,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 20집, 2022. 209-211쪽; 강삼혜,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文化史學』 第60號, 2023. 149쪽. 나말여초 도선에 의해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고려국의 관리를 받아오다 원 간섭기 금강산 신앙의 부상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오대산 사자암의 사세가 위축되어 빈터로 남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4) 강삼혜, 앞의 논문, 155쪽.

5) 권근, 『양촌집』, 「五臺山獅子庵重創記」, “... 盖爲追福先逝 推利後世 物我均霑幽明共賴云爾...”(한국고전종합DB)

6) 『동문선』 제90권, 서. <송운설악상인>; 이원석,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한국불교학』 제67집, 2013. 183-185쪽. 나옹혜근의 오대산 주석은 그 문도들이 오대산 불교를 중흥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초 왕실을 중심으로 오대산 불교계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공되자 그해 11월 태상왕 이성계는 사자암에 친림(親臨)하였고 1466년 세조는 사자암에서 직접 곤룡포로 갈아입고 보궁에 올라 향을 피워 배례하고 봉양 보시하였다.<sup>7)</sup>

윤선거(尹宣擧: 1610-1669)는 그의 문집에서 오대산 적멸보궁은 무영 색름(無影 蹟凜)이 중창했는데 현재는 그의 제자인 의규(義珪)가 홀로 머물고 있다고 했다.<sup>8)</sup> 17세기 초 적멸보궁을 중창한 색름은 경기도 삭녕 용복사 『화엄경소주(華嚴經疏註, 1631)』의 교정을 맡았는데 그의 제자 영십(靈十)은 각수를 담당하며 불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색름의 스승 무염 성정(無染 性淨)은 청허 휴정의 법맥을 따르는 승려였으므로 색름과 의규 역시 같은 법맥이었다.<sup>9)</sup>

조선 후기 사자암의 정황은 사대부 문집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송광연(宋光淵: 1638-1695)은 1676년 오대산 중대를 방문한 기록에 “중대 위에는 적멸보궁이 있다. … 적멸보궁 오른쪽은 금몽암(金夢庵)인데 … 금몽암 아래가 사자암으로 승려가 없어 거의 폐해졌으니…”라고 하였다.<sup>10)</sup>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1718년 윤 8월 8일에 적멸보궁에 올랐는데 보궁의 내부는 비어있었고 새벽과 저녁의 예불은 금몽암을 지키는 승려가 봉행한다고 했다.<sup>11)</sup> 이 기록들을 통해 당시 사자암의 사세는 쇠락해져 승려가 머물지 않는 빈 절로 퇴락하는 부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의 유람기를 통해 18세기 중대 적멸보궁의 예불은 금몽암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지만 1740년 채지홍(蔡之洪)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금몽암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sup>12)</sup> <여지도서(1760)>의 강원부(江原府) 지도에는 상원사 위로 사자암이 있고 그 옆으로 금옹사(金翁寺)가 있다.<그림 1> 월정사를 비롯해 지도에 표기된 사찰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611)>의 강원대도호부(江原大都護府) 불우조(佛宇條)에도 있지만 금몽암은 보이지 않는다.

7) 태상왕의 사패교지를 내린 연도와 권근의 집필연대가 1401년이고 사자암의 중창 연도는 1400년 11월이다;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1999; 『五臺山事蹟記』, 『我朝本山事蹟』.

8)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大方廣佛華嚴經疏』 간행과 승려 문파의 상관성: 삭녕 용복사와 순천 송광사 간행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9, 65쪽; 윤선거, 『魯西遺稿』 속권 3 「巴東紀行」, “… 七日. 早登中臺, 歷獅子庵金夢庵, 庵上數十步許, 乃建一舍, 鐵瓦重壁, 扁曰寂滅寶宮, 內不置金像, 只設佛影, 亂插雜色紙花而已, 有釋蹟凜勸立云, 夢庵中有僧義珪獨居, 乃凜之高足也. …”(한국고전종합DB)

9) 김단일, 앞의 논문, 64쪽.

10) 송광연, 『泛虛亭集』 권7, <오대산기>(한국고전종합DB)

11) 김창엽, 『三淵集』, <오대산기>(한국고전종합DB), ‘…而寂滅寶閣. 在石築之前. 只是空室. 有若人家之丙舍. 然晨昏香火. 自金夢守僧奉之…’.

12)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 적멸보궁 학술조사 보고서』, 2016, 30쪽.



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 부분, 1760(한국고전종합DB)



그림 2. 오대산 중대. 1788년, <금강사군첩> 부분, 견본담채, 30×43.7cm, 개인소장.

1788년 김홍도는 왕명을 받아 금강산을 답사하며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을 그렸다. 화첩 가운데 오대산 중대 지역을 그린 <오대산중대(五臺山中臺)>라는 화제(畫題)가 쓰인 화폭에서 산 정상 적멸보궁 아래에 있는 암자는 위치로 보면 중대와 열 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다던 금몽암이 아니라 사자암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자암은 정면 4칸에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얻은 전각이다.



그림 3. 향각, (2002년, 『한국의 사찰문화재\_강원도』)

19세기 말 적멸보궁을 증수하고 기록한 현판에 따르면 1767년(건륭 32, 丁亥年) 연파화상(延波和尙)이 적멸보궁을 수리했다 전하는데 단원의 그림 속 적멸보궁과 사자암은 아마도 전각의 증수불사가 완성된 이후의 모습일 것이다.<sup>13)</sup>



그림 4. 중대향각 편액, 조선시대, 나무.

사자암의 전각들은 1878년(고종 15) 적멸보

13)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강원도, 2002, 113쪽. <중대적멸보궁중창기> 현판. 1878년,

궁이 증창되면서 함께 재건 되었음을 「중대적멸보궁증창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시주자의 명단에는 왕실 상공들이 다수 이다. 묘사채로 사용되던 향각은 낡고 헐어 1999년 5층으로 신축되어 현재에 이른다. 증건되기 이전 사진 속의 향각은 정면 6칸 측면 3칸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처마 밑에는 중대향각(中臺香閣)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sup>14)</sup>(그림 3, 4)

### Ⅲ. 중대 사자암 불화의 현황

#### 1.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

##### 1) 불화의 현황



그림 5.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 1894, 면본채색, 화면 전체 가로 238cm, 세로 137cm, 월정사 성보박물관.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는 오대산 중대 사자암 향각(香閣)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주존불인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의 후불도로 모셔져 있었다. 이 그림은 면 3매를 화면의 길이만큼 재단하여 세로로 잇대어(향 좌로부터 97cm, 106cm, 36cm) 바탕질을 마련하여 나무로 짠 틀에 올린 패널 형태로 상부에는 그림을 걸 수

14)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503쪽,

있는 원형의 고리가 달려 있다. 불화의 전체 크기는 가로 238cm, 세로 137cm이며 화면에는 붉은색과 녹색, 남색 등의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했는데 화면의 가장자리는 흰색 안료를 칠하고 3.5~4cm 너비로 변아를 두었다.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는 2017년 바탕질의 손상과 안료의 탈락 및 이염과 오염 등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수리 보수를 거쳐 안정화된 상태이다.<그림 5>

가로로 긴 장방형의 화면에는 둥근 형태의 두광과 신광을 겸비한 여래를 중심으로 보살중(菩薩衆), 사천왕(四天王), 십대제자(十大弟子) 등이 좌우 대칭구도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화기에 불화명(佛畫名)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범신인 비로자나불상의 후불도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화면에 그려진 여래는 삼신불(三神佛) 구성에서 석가여래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하단 솟아오른 연화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여래 좌우에는 4위의 보살이 V자형 구도를 이루며 배치되었다. 하단 전면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겸비한 문수와 보현보살 2위는 반가부좌 형태이고, 그 뒤 합장한 모습으로 신광은 생략하고 두광만 그려진 지장보살과 맞은편 정확한 존명이 불분명한 보살은 서있는 모습이다. 보살의 바깥으로는 사천왕이 배치되었는데 각각의 지물로 천왕의 정체성을 나타내었다. 화면 상단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천공을 배경으로 아난과 가섭을 비롯한 8구의 제자 성종과 용왕과 용녀가 있다. 여래의 두광 좌우에는 타방불 2위가 있다.

화면 하단에서 솟아 오른 청연화에 자리한 석가여래는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은 들어 설법인 형태를 취했다. 여래의 불두에는 중간 계주와 정상 계주가 선명하고 둥그스름하면서 옆으로 편편한 얼굴에는 오밀조밀하게 그려진 이목구비가 표현되어 있다. 여래의 불의는 두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 형태로 가사의 가장자리에는 꽃문양으로 공교하게 장식하고 있는데 붉은 끈으로 묶은 녹색의 내의(內衣) 가장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문양을 그렸다. 두광의 내부는 초록 안료를, 신광의 내부에는 금박을 이용하여 채색하였는데 신광의 금박 처리는 왕실 발원 불화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결가부좌로 앉은 왼발 주위에는 칼치 장식이 날카롭게 묘사되었고 붉은 가사에는 파도문 속에 화문(花紋)을 배치한 독특한 문양을 금니로 그려 화려함을 더했다.

여래 주위 자리한 4위의 보살 가운데 대좌 옆 향 좌측 연꽃을 가진 보살은 오른 무릎을 접고 왼 다리는 내려 연꽃 족대에 올린 반가부좌 형태로 있다. 그 맞

은편에는 대칭구도를 이루며 목단을 두 손으로 감싸 쥔 보살이 있다. 세로로 짤라진 화면 공간의 제약에 따라 하단 1열에 그려지는 사천왕의 형태는 좌상으로 바뀌었다. 화면 가장자리 용과 여의주를 가진 천왕과 보검을 가진 천왕은 한 무릎은 세우고 반대편은 바닥에 꿇은 자세에서 상반신을 틀어 화면 바깥을 보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조선 후기 불화에서 이 같은 형태의 사천왕은 〈예천 서악사 석가여래회도〉에서 처음 보이며 19세기 후기 불화에 수용되어 전승되고 있다.<sup>15)</sup>

여래의 신광 우측에는 두광을 겸비하고 두 손을 합장한 승형(僧形)의 지장보살이 보인다. 관자놀이 양측으로 두건을 묶는 매듭이 표현된 것으로 미루어 두건을 착용한 모습을 나타내려 한 것 같다. 맞은편 대칭구도를 이루며 그려진 보살 역시 합장하고 서 있는데 장방형 얼굴에 오밀조밀하게 원만 상호를 잘 나타내고 있지만 보살의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모티프는 보이지 않는다. 그 옆으로 수염을 희게 그린 천왕은 비파를 가지고 있는 동방 지국천왕이고 지장보살 우측 탑을 가진 천왕은 북방 다문천왕을 그린 것이다. 화면 상단 자리한 부처의 제자와 용왕, 용녀는 상반신만을 그렸는데 각각 다양한 지물과 자유로운 자세로 화면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두광 좌우 대칭구도를 이루며 합장하고 서있는 타방불은 각각 사선 구도로 시선을 두어 화면에 동세(動勢)를 더했다.

## 2) 불화의 화기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 하단 화면의 중앙에는 너비 30.5cm, 높이 17cm 크기로 검은 선으로 구획된 화기란을 마련하여 흰 바탕에 먹으로 불화의 화기를 적었다. 화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기〉〈그림 6〉

光緒二十年甲午二月初十日起始十六日 落成奉安于五坨山月精寺中臺香閣  
緣化所」

證明 日峰璟郁」誦呪 泳海景學」持殿 比丘鎡性」淨桶 金道錄」

金魚 普庵肯法」比丘雲照」供司沙彌 永秀」

鐘頭 沙彌惠明」茶角 沙彌啓訓」都監 大隱昨珮」別座 雲巖東琳」

化主 濟庵應荷」

15) 황아라. 「조선시대 아미타설법도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95-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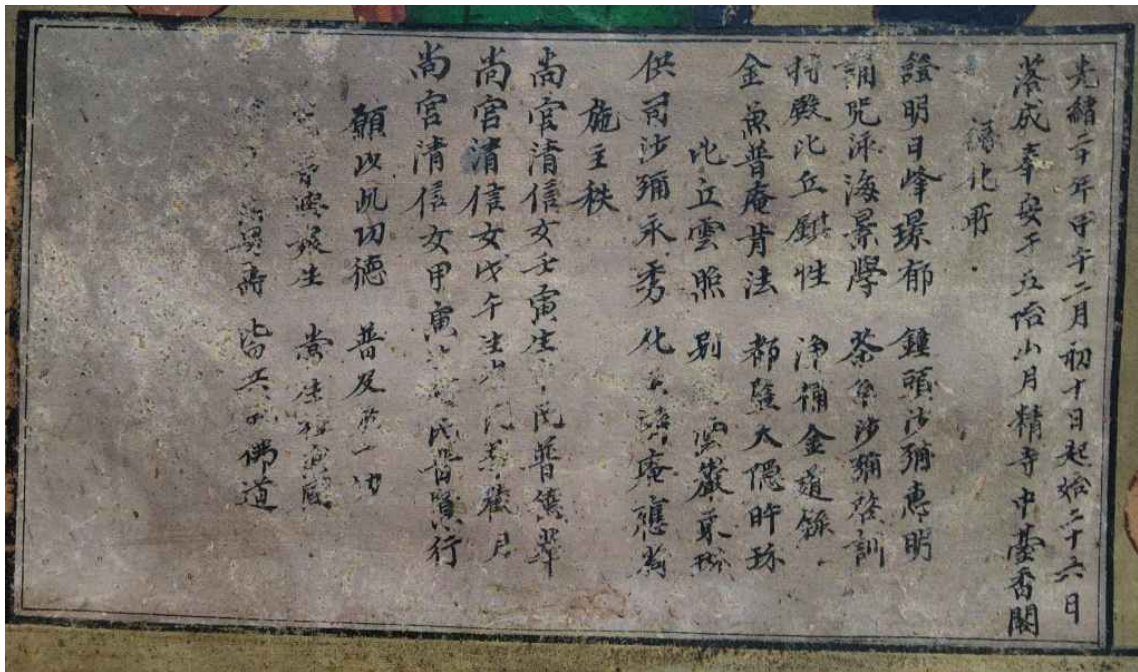


그림 6.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 화기. 그림 5의 부분.

施主秩」

尙宮清信女壬寅生申氏普德華」尙宮清信女戊午生崔氏華藏月」

尙宮清信女甲寅生趙氏寶賢行」<sup>16)</sup>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1894년(光緒二十年, 고종 31) 2월 10일에 제작을 시작해서 2월 16일 불화를 점안해 사자암 향각에 봉안하였다. 불화가 법식에 맞게 그려졌는지를 감수하는 증명법사는 일봉당 경욱(日峰堂 璟郁)이 맡았으며 화승은 보암 공법과 운조 2인이고 화주는 제암당 응하(濟庵堂 應荷)이다. 그 외에도 화기에는 불화를 조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송주(誦呪)와 별좌(別座)의 소임을 맡은 승려의 범명이 기록되어 있다.

불화는 모두 3인의 시주로 제작되었는데 시주질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강원도 지역민이 아닌 왕실 상궁들이다. 상궁 임인생 신씨(壬寅生 申氏)는 1842년에 출생한 사람이고 상궁 무오생 최씨(戊午生 崔氏)는 1858년, 상궁 갑인생 조씨(甲寅生 趙氏)는 1854년 태어난 사람들이다. 상궁 신씨는 보덕화, 최씨는 화장월, 조씨는 보현행이라는 불명을 쓰고 있다. 상궁 최화장월은 사자암 불사 이후 경기도

16) 화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수를 기록한 복장중수발원문을 참조하였음.

일원의 사찰불사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불자였다.<sup>17)</sup> 화기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회향(廻向) 발원문으로 이 불화를 조성하는 공덕이 모두에게 두루 미쳐 모든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무량수불을 함께 뵈고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다.

## 2. 중대 사자암 신중도 현황과 화기



그림 7. <중대 사자암 신중도>, 1894, 면본채색, 화면 전체 가로 122cm, 세로 115cm, 월정사 성보박물관.

『화엄경』에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는 신중도는 여래가 그려져 있지 않은 불화

17) 상궁 최씨는 <불암사 만일회 법전중수(1910)>와 <소요산 자재암 상량문(1911)>에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주 흥국사 변와중수기(1918)>에는 인권화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면서 독립적인 예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 신중도는 1740년에서 1759년까지는 ‘천룡탱(天龍幀)’이라 불리었는데 이때 화면의 구성요소는 위태천과 현왕, 금강신, 팔부중 등이다. 이후 제석천 등의 천부(天部) 도상이 추가되어 1768년까지 ‘제석천룡탱(帝釋天龍幀)’으로 호명되다, 1769년 신중 의례가 정비된 의식집 간행 이후에 이 불화는 ‘신중탱’이라는 명칭으로 자리를 잡는다.<sup>18)</sup> 위태천이 정면을 향해 있고 제석과 범천이 측면으로 그려져 있는 <중대 사자암 신중도>는 위태천의 비중이 높아진 근대기 이후 신중 도상의 특징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위태천이 중심이 된 신중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점차 그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태천을 비롯해 제석과 범천이 함께 그려진 도상은 신중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이다.<sup>19)</sup>

<중대 사자암 신중도>는 사자암 향각에 석가여래회도와 함께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이 그림은 면 2매를 화면의 길이만큼 재단하여 세로로 잇대(향 좌로부터 96.5cm, 25.5cm) 바탕질을 마련하였다. 그림은 나무로 짠 틀 위에 올려진 패널 형태로 상단 틀에는 걸 수 있는 용도로 달린 원형의 고리가 2개가 있다. 불화의 전체 크기는 가로 122cm, 세로 155cm이며 화면 사방 가장자리에는 3.2~3.5cm 너비로 흰 바탕의 변아를 마련했는데 향 좌측 변아에는 묵서로 화기를 기록해 두었다. 전체적인 화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17년 수리 보수작업이 진행되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과 청색, 녹색 안료를 위주로 채색되어 있으며 무기류의 지물이나 장신구 등의 특징적인 부분에는 금니를 이용해 화면의 화려함을 더했다.<그림 7>

정방형에 가까운 화면에는 두광을 겸비한 위태천과 보관을 쓰고 있는 범천과 제석천이 역삼각형의 구도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화면 중앙 위태천은 갑옷을 입고 봉황 깃털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쓴 채 두 손을 합장하였는데 그 위에 금강저가 올려져 있다. 어깨 위 양청색(洋靑色)으로 바림하여 채색된 천의는 바람을 받아 한껏 부풀어진 모양이다. 위태천의 좌우에는 원형의 두광과 거신 광배를 겸비한 범천과 제석천이 있다. 제석과 범천은 두 손을 합장하고 중앙 위태천을 향해 몸을 틀고 있는 형태로 좌우 대칭구도를 이루었다. 제석과 범천은 천의와 보관의 형태 등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특징적인 지물이 없어 정확한 존명은 알 수

18) 김현중, 「朝鮮時代 神衆圖 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79쪽.

19) 김재영, 「근대 신중도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18, 12쪽. 26쪽.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 사이 제작된 불화는 대략 1430여 점 정도로 그 가운데 신중도가 모두 325점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없다.

제석과 범천 좌우 2구의 인물은 산왕신(山王神)과 일월관(日月冠)을 쓴 것으로 미루어 일궁 또는 월궁천자를 나타내려 한 것 같다. 산왕신은 투명 망건에 두 손으로 영지를 받들어 쥔 근엄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다. 그림을 그린 화승이 수도원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산왕신의 맞은편에는 조왕신이 자리해야 하지만 화면에 그려진 인물은 조왕신의 대표적 지물인 오행통(五行筒)이 없이 일월관을 쓰고 홀을 가진 공경대부 형태이다. 아마도 공간적인 제약으로 간략해진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짝을 이루며 그려지는 산왕신과 조왕, 일궁과 월궁 가운데 하나씩만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하단 1열에는 푸른 바탕에 백색선조(白色線條)가 뚜렷한 폐슬(蔽膝)을 늘어뜨린 조복(朝服)에 오량관(五梁冠)을 착용한 인물을 중심으로 좌우 2구씩 무장형의 신중을 그렸다. 중앙 인물은 왼손에는 붉은 구슬을 쥐고 수염이 긴 문인상(文人像)으로 좌우의 무인형태(武人像)로 그린 4구의 신중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중도에 그려지는 무장형 인물과 반월도 같은 병기(兵器) 등은 『삼재도회(三才圖會)』 등의 중국 화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화면 상부 위태천의 두광 좌우에는 전이 넓은 삼족향로와 보과반(寶菓盤)을 지물로 받들고 있는 천녀 2구가 있으며 제석과 범천 좌우에는 붉은 끈으로 두 갈래로 머리를 묶은 천동이 깃발과 번을 들고 있다.

〈중대 사자암 신중도 화기〉〈그림 8〉

光緒二十年甲午二月初十日爲如十六日 落成奉安于中坫香閣

證明 日峰璟郁 誦呪 泳海景學

金魚 梵化潤益 普庵肯法 沙彌性敏

都監 大隱昨珮 別座 雲巖東琳

緣化所 鎰性 化主 濟庵應荷

화기를 보면 이 불화가 석가여래회도와 함께 1894년 2월초 10일에 제작하여 그달 16일 중대 향각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화의 증명과 송주는 일봉경욱(日峰璟郁)과 영해경학(泳海景學)으로 석가여래회도와 같다. 불화 제작에 있어 불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소임인 도감과 공양간 등의 모든 일을



그림 8. 신중도 화기

감독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소임인 별좌를 맡은 비구는 대은 오진(大隱昨玆)과 운암 동림(雲巖東琳)으로 이들 역시 석가여래회도와 같다.

이 그림의 금어 범화당 윤익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수화승으로 처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의 수화승을 담당했던 보암 공법과 신중도를 그린 범화 윤익은 이 그림에 앞서 1894년 정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사자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의 증수에 참여했는데 그 인연으로 이들은 석가여래회도와 신중도의 수화승을 맡아 불화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주 또는 화사의 역할은 불화 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으로 불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의 역할에 따라 재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덕망이 높은 고승이 소임을 맡는다.<sup>20)</sup> 사자암 불화 제작을 위해 시주를 받고 화승을 초빙하는 불사의 모연 업무를 맡았던 스님은 경기도 흥국사 승려였던 제암 응하(濟庵堂應荷)이다. 응하는 남양주 흥국사 기허당 탄학의 법맥을 따르는 인허당 성유의 제자이다. 그는 사자암 불사 이전 1867년 서울 보문사 석가여래회도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지역 사찰 불사의 연화질에 증명과 화주 소임으로 이름이 보인다.<sup>21)</sup>

#### IV. 중대 사자암 불화의 조성 배경

##### 1. 불화 조성의 왕실 조력자

오대산 사자암에서 불화를 조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주자가 모두 상궁이라는 점에서 왕실과의 관련성이다. 조선 말

20)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화기> 분석과 용어 고찰」, 『불교미술』 21호, 2010, 143-149쪽, 참조.

21) <흥국사 지장시왕도(1868)> 화기, “...恩師印 虛堂惟性」 亡翁師 永庵堂進淑」 亡父戊午生星州李氏...”.

기 왕실 발원 불화의 새로운 후원자로 대두된 상공들은 왕실의 불사 후원을 대행하거나 직접 후원하는 발원자가 되기도 하였다.<sup>22)</sup> 사자암이 조선 태조의 원찰이었다는 내력은 궁녀들의 시주를 이끄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9세기 사자암 불화를 조성하기 이전 적멸보궁의 재건을 위한 몇 차례의 시도 가운데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된 시기는 1878년(光緒 4)이다.<sup>23)</sup> 용악 보위(聳岳普衛)가 쓴 <중대적멸보궁중창기(寂滅寶宮重創記)>에는 화주 혜은(惠隱)화상이 경



그림 9. <중대적멸보궁중창기> 현판, 1878, 나무(월정사박물관)



그림 10. <중대적멸보궁시주질> 현판, 1878, 나무(월정사박물관)

성(京城)에서 와서 널리 단연(檀緣)을 모아 불사를 진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9> 시주질 현판은 현재 2개가 전하는데 <오대산중대적멸보궁중건시주질>에는 상공을 포함 70여 명의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대적멸보궁대시주질>에는 5명의 대시주자를 기록하면서 불사의 인권시주가 임인생 신씨(壬寅生 申氏) 보광명(普光明)이었음을 밝혀 놓았다.<sup>24)</sup> <그림 10, 11>

22) 김성순, 「조선 왕실 불교의례에 나타나는 '수월도량공화불사」, 『한마음연구』 제11집, 2023, 23 쪽. 19세기 왕실발원 불사는 전반적으로 그 인원과 범주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알려진 수도권지역 사찰에 상공이 후원한 건축불사는 11건이고 불화 불사는 50여건이 넘는다.

23) 이원석, 앞의 논문 199쪽. 1814년과 1825년 불사의 불량문에는 구체적인 중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1878년 혜은화상의 改建을 설명한 현판에도 위의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11. <중대적멸보궁대시주질> 현판, 1878, 나무(월정사박물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사찰 불사에 많은 궁인들이 참여한 까닭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없어 알 수 없다. 시주자 중에서 거금을 시주한 기유생 천씨는 천일청(千一淸)이라는 인물이다. 효정왕후 홍씨와 철인왕후 김씨는 소생이 없어 적적한 궁중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어린 궁녀를 대비전에서 함께 돌봤다고 전해지는데

그 궁녀가 바로 천일청이었다. 1878년 5월 12일 철종의 비였던 철인왕후가 창경궁(昌慶宮) 양화당(養和堂)에서 승하했기 때문에 시주를 받고 불사가 진행될 당시에 철인왕후의 병세는 위중했을 것이다. 어려서 입궁했던 천일청에게 큰 의미가 있는 철인왕후가 병환으로 생사가 불분명하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500량이라는 거금을 불사에 시주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관련지어 추정해 보면 다수의 상궁이 시주자로 불사에 참여한 까닭도 병상에 있는 철인왕후의 쾌차를 염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주한 궁녀들은 대부분 1878년 2월 삼각산 화계사 명부전 불사에 시주자로 함께하고 있다. 왕실 원당이었던 화계사의 전각 가운데 명부전은 당대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의 염원으로 창건되었기 때문에 효정왕후 홍씨를 비롯해 왕실의 비빈들과 궁녀들이 시주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24)</sup>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불사는 화계사의 인연을 이어 헤은 화상의 불사모연을 계기로 상궁 신씨가 인권시주가 되어 궁녀들이 함께 1878년 적멸보궁 중건 불사에 시주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흥국사의 승려였던 제암 응하가 화주가 되어 왕실 관련 인물들의 시주를 받아 진행했던 사자암 불상 증수와 불화 조성도 경성에서 화주가 내려와 진행하였던 1878년 적멸보궁 증창과 맥을 같이하는 왕실 발원 불사이다. 비슷한 시기 상궁들이 수도권 지역 승려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지방 사찰의 후원을 한 유사한 사

24) 상궁 甲戌生 千氏는 200냥, 상궁 己酉生 千氏는 300냥, 청신녀 丙子生 梁氏 200냥 시주했다. 상궁 갑술생 천씨는 대원궁이 참여한 화계사 명부전 개금개채 불사(1880)에는 인권시주를, <화계사 패불도(1886)>에는 대왕대비의 명을 받들어 대시주하고 있어 지위가 높은 상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유생 천씨는 1884년 범운 취견이 인권화주를 맡은 예천 용문사 불사에도 대시주자이다.

25) 유근자, 「화계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시주자」, 『한국불교사연구』 4권, 2014. 242쪽.

례로는 1884년 경북 용문사 불화 불사를 들 수 있다. 20여 명의 상궁이 시주한 용문사 불화 조성의 화주승은 화계사 승려 범운 취견(梵雲 就堅)으로 그는 대원군을 설득하여 그의 시주를 받아 1866년 화계사 증창 불사를 실행한 인물이다.<sup>26)</sup> 용문사 불화 제작에 참여한 화승들도 금화 기형(錦華 機炯), 대허 체훈(大虛 體訓), 보암 긍법(普庵 肯法)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이라는 점도 사자암 불사와 유사하다.

사자암 불사에 시주한 상궁들 역시 수도권 사찰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한 경력들이 있다. 상궁 신씨 보덕화(尙宮 申氏 普德華)와 최씨 화장월(崔氏 華藏月)은 제암 응하가 화주였던 다른 불사에도 시주를 했다. 응하가 1889년 흥국사 산신각을 증건하였을 때 함께 발원하여 공덕을 쌓은 인물 신보덕화는 1878년 적멸보궁 증창불사의 인권시주였던 신씨로 추정된다.<sup>27)</sup> 상궁 최씨는 사자암 이후 응하와 함께 경기도 자재암 증건 불사에 대시주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사자암 불사는 재원이 미약한 지방 사찰의 불사를 수도권 지역 사찰의 승려가 화주가 되어 왕실 인물들의 시주를 받아 진행했던 19세기 후반 사찰 불사의 한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 불화의 조성 동기

사자암의 향각에 봉안할 불화를 제작한 이유에는 다양한 조성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수기도는 사찰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의무였고 왕실 발원 불사는 왕실의 안녕이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후반 강원도에 자리한 왕실의 원찰에 왕실 안녕을 위해 불화가 조성된 사례는 1863년 속초 화암사에서 제작된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를 들 수 있다. 이 불화는 철종과 철인왕후를 비롯해 당시 권문세가였던 김좌근과 그의 첩 양씨 등의 시주를 받아 서울 강남 봉원사 주지를 지낸 대원이 금어로 제작한 불화였다. 정조의 원당이었던 화암사에 이 불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동기는 화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조의 후궁이면서 순조의 생모였던 유빈 박씨(綏嬪 朴氏)의

26) 유경희, 「조선 말기 왕실발원불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74쪽; 범운 취견은 1879년 건봉사 불사에 화주가 되어 왕과 왕비, 세자, 대왕대비, 왕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시주를 받아 전각을 증건하였다. 1888년 해인사 전각 중수에도 내탕금을 받아 화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사찰사료\_강원도지부』(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27) 불명은 여러 개를 동일인이 받을 수 있으므로 상궁 임인생 신씨는 보광명, 보덕화라는 별명을 가진 한 명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1878년 화계사 불사와 증대 적멸보궁증창 인권시주를 했다.

묘 휘경원(徽慶園)은 1863년 5월 그 터가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차로 천봉(遷奉)한 일이 있었고 이 행사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인물은 김좌근(金左根)이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명부계 신앙을 도해한 화암사 불화 2점은 유빈 박씨의 명복과 왕실의 안녕이 불화 조성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왕실 원당에 상궁들이 시주자가 되어 불화를 제작 봉안한 동기로 볼 수 있는 왕실 관련 정황 가운데 사자암 불사와 시기적으로 접목되는 사건은 왕세자의 21세 생일이다. 불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1894년 2월은 순종 황제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이었다. 1874년 2월 8일 고종과 왕비 여흥민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순종은 다음 해 2월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실에서는 1894년 2월 8일 왕세자의 21세 생일을 기념해 외빈을 모시는 외진연(外進宴)과 왕실과 종친에 베푸는 내진연(內進宴)을 베풀고 밤까지 연회를 열어 크게 잔치하였다. 고종은 세자의 21세 생일을 맞아 “작년 이때도 기쁜 뜻을 표했는데 더구나 금년은 작년보다 한층 뜻깊은 해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처럼 온 나라의 신민이 함께 경사를 축하하고 있으니 널리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 하면서 죄가 가벼운 죄수를 방면하고 중죄인도 일시적으로 석방하라 지시했다.<sup>28)</sup>

사찰에서 왕과 왕비, 세자의 생일날 불공드리는 삼전(三殿)의 축수는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의례였고 더욱이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의 성년이 되는 생일은 국가와 왕실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중요하고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sup>29)</sup> 역사적인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태조의 원찰이던 사자암 불사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세자의 만 20세 생일을 기념해 세자의 연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 신문왕의 아들로 오대산에 머물렀던 보천(寶川)은 입적하면서 오대산에서 행할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가운데 중대 여진원과 관련해 ‘중양에는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부동상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황색 바탕에 비로자나불과 36화형도를 그리라’고 하였다.<sup>30)</sup> 따라서 중대 사자암

28) 『승정원 일기』, 高宗 31年 2月 7日(甲寅) 康寧殿으로 나아가 外進宴·內進宴을 設行하다. 이어 夜宴을 設行하고 教를 내려 輕囚를 放送, 重囚를 保放케 하다. 이 날이 王世子 望三의 生辰이기 때문이다. 高宗 31年 2月 8日…동궁이 21세가 되었기에 진연을 베풀어 기쁨을 표하노라…“

29) 『조선사찰사료』, 〈강원도지부〉, 건봉사 중건 불사는 범운당 취건이 화주가 되어 진행하였는데 1878년 재건이 완성된 이후 원당으로서 왕과 왕비, 세자의 탄생기도를 2월8일, 7월 25일, 9월25일에 절의 모든 스님들이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며 聖上의 장수를 축원하였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30) 『삼국사기』, 권 제3, 탐상 제4, 〈대산오만진신〉,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한국고대사료DB)



불화의 제작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같은 법맥을 따르는 승려 집단의 인물로 조합을 이루는 형태가 많았다. 조선 후기 승려들은 문중에 따라 세력을 구현하는 변화를 보이며 승맥을 중시하는 계파의식이 형성되었고 같은 문중 승려들은 동문으로서 서로의 불사를 돕고 있다.<sup>32)</sup>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불화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화승의 인력 규모도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같은 문중이 아닌 화맥에 따라 불화가 제작되는 변화를 나타낸다.<sup>33)</sup> 근대기 불화를 함께 조성하는 화승들은 지역이나 사찰에 관계 없이 문중보다는 특정 화승의 화풍을 따르는 화맥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더 많았다. 사자암 불화는 편양 언기에서 환성 지안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제암 응하의 주도로 흥국사 화맥을 따르는 공법과 응륜에 의해 강원도 사찰에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근대기 불화 제작의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왕실에서 지방 사찰에 시주하여 불사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승려로 주축을 이루지만 1894년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불사는 발원자도 제작자도 모두 수도권지역에 머물던 인물로 구성된 차이점이 있다. 중대 사자암 불화의 화주인 제암 응하는 남양주 흥국사 승려로 왕실에서 발원한 불사 가운데 대표적인 서울 옥수동 미타사 불사에서 화주로서 대방 신축(1884)을 주도하고, 극락전 불화의 증명(1887)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1889년 기록된 <양주 종남산 미타사중건검단확기>에는 제암 응하가 도화주가 되어 이 불사를 이끌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1825년 남양주 흥국사의 중창주 기허당 탄학의 제자였던 인허당 성유(印虛 性維)는 응하의 스승으로 이들은 같은 법맥을 잇는 승려 문중에 속해 있었다.<sup>34)</sup> 성유는 19세기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승려 문중으로 자리했던 화악 지탁과 화담 경화의 원근문정(遠近門庭)이었다. 기허와 화악, 화담 문중은 19세기 주요 문중으로 부상한 편양 언기(鞭羊 彦機) 문중 출신인 환성 지안에서부터 이어져 온 법맥을 따르고 있다.<sup>35)</sup> <적멸보궁중창기문(1878)>를 쓴 오대산의 용악 보위도 환성의 7세손으로 화악당 지탁에서 이어지는 선맥을 따르는 영

32) 이용윤, 「조선 후기 전라도 수화승의 화맥과 법맥」, 『동악미술사학』 34권, 2023, 201쪽.

33) 유경희, 앞의 논문, 139쪽.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화승의 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34) 유경희, 「종남산 미타사 극락전 불화를 통해본 19세기 원당의 불화」, 『강좌미술사』 59호, 2022, 218쪽; 흥국사 지장시왕도 화기, 1868, “…化主兼施主 濟庵應荷 恩師 印虛堂惟性 亡翁師 永庵堂進淑…”

35)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 華潭 門中の 畫僧」, 『동악미술사학』 5호, 2004, 148쪽. 151쪽.

허당 선영의 수선(受禪)제자였다.<sup>36)</sup> 때문에 제암 응하도 넓은 의미로 같은 문중이 기거했던 오대암 중대 사자암의 불사에 화주가 되어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반 수도권의 사찰에는 화승들이 화파를 형성해 화맥을 이어갔는데 이는 경상도 사찰에서 보이던 현상과도 부합된다.<sup>37)</sup>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대원과 세원 등은 봉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화담 문중의 화승들이었다. 그들은 가까운 법맥을 유지하면서 기허당 탄학을 따랐던 쌍운 희원(雙雲 熙圓), 금곡 영환(金谷 永煥)과 경선 응석(慶船 應碩) 등 흥국사에 적을 둔 화승들과 많은 불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화담 경화의 수선제자(修禪弟子)이면서 희원의 법제자로 그의 화풍을 따랐던 중봉당 혜호는 이 같은 문중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혜호가 동참했던 불사의 증명은 인허당 성유가 맡은 사례가 많았고 그가 그린 강원도 삼척 <신흥사 아미타여래회도(1861)>의 증명법사도 동일 문중의 승려인 용악 보위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승문(僧門)에 속한 승려로서 서로 불사를 돕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화승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금곡 영환의 행보는 희원과 혜호가 제작한 <석천암 지장시왕도(1848)>의 제작에 동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sup>38)</sup>

중대 사자암 <아미타여래회도>를 그린 보암 공법(普庵 肯法)과 <신중도>의 불화 윤익(梵化 潤益)은 19세기 후반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이다. 윤익과 공법은 모두 흥국사 출신으로 알려진 금곡 영환, 경선 응석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화에 동참 화승으로 참여하여 같은 화맥을 따르고 있다. 공법은 제암 응하가 화주가 되어 진행했던 <옥수동 미타사 천불전 감로(1887)>와 <흥국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892)> 제작에 참여했는데 흥국사 불화는 윤익도 함께 하고 있다. 옥수동 미타사와 남양주 흥국사 불사에 참여한 화승들은 수화승은 금곡 영환과 한봉 창엽, 경선 응석, 윤감 등으로 남양주 흥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불화승이 대다수이다. 제암 응하와 함께한 불사의 인연으로 공법과 윤익은 사자암 불사에 화승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과 더불어 사자암 불화 제작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혜산당 축연(惠山 竺衍)이 있다.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 중수 발원문>에 의하면 1894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작업에는 불

36) <통도사백련정사만일승회기(1875)>간기에 용악보위는 자신을 五臺山人으로 기록하였다.

37) 이용윤, 앞의 논문, 203. 19세기 전라도 지역 화승들은 기존 세력인 벽암과 신흥 세력인 편양문중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화승들의 화맥 계승도 유사하다.

38) 정진희, 「중봉당 혜호의 작품과 화맥연구」, 『선문화연구』 30집, 2021, 337쪽.

화를 그린 보암 공법이 금어로 혜산 축연, 범화 윤익 등이 참여했다.<sup>39)</sup> 이후 상궁이 시주자로 이름을 올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개금발원문(1908)>의 화승들 가운데 신사 혜산(信士 蕙山)이라 기록된 인물은 혜산당 축연을 말하는 것으로 그와 사자암의 인연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축연은 초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벽산 용화(碧山 榕夏)가 금어를 맡은 작품에 동참하고 있다. 이후 지역을 옮겨 이 둘은 영조의 친모였던 숙빈 최씨의 원당인 파주 보광사에서 상궁 천일청의 시주를 받아 경선 응석과 화맥을 같이하는 화승들 사이에서 공유된 도상으로 <신중도(1890)>를 그렸다. 1894년 공법과 함께 그린 <월정사 산신도(1894)> 이후 1910년까지 축연은 불화승으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연화질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비구가 아닌 '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sup>40)</sup> 1888년 상원사 불화 조성에 참여했던 축연이 20세기 초 활동을 멈추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암 불사에 화승으로 이름이 보인다는 것은 그가 사자암 문중과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알려준다.

## 2. 중대 사자암 불화의 도상적 특징

19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상이 정형화되어 화맥을 같이하는 화승 사이에 공유·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들은 대표되는 작품의 불화 초를 기본으로 하여 권속들을 더하거나 빼는 변화를 주고 있다.<sup>41)</sup> 사자암 불화 가운데 아미타여래회도는 이와 같은 시대적 양식을 뚜렷이 나타내는 같은 유형의 작품이다.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는 대좌를 엮은 단의 형태에서만 차이를 보일뿐 남양주 견성암 대웅전 아미타여래회도와 유사하다. <그림 13> 두 불화는 같은 불화 초를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여래의 대의, 제자 성중의 지물, 사천왕의 형태 등에서 거의 동일한 화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882년 봉은사의 승려 호봉당 응규가 증명을 맡고 봉성당 서린이 화주가 되어 제작한 <견성암 아미타여래회도>를 그린 화승은 혜고 봉간(慧果 奉侃)과 원담 종수(圓潭 宗修), 봉법(奉法) 세 사람이었다.<sup>42)</sup> 남양주 견성암은 풍양조씨의 원당으로 대웅전 후불도로 봉안된 이 불화를 시주한 사람은 헌종(憲宗 1827-1849)의 후궁이었던 경빈

39) 강삼혜, 앞의 논문, 167쪽; 화승으로 기재된 虎峯性煜, 雲潭宜荷(건봉사 승려), 寧隱法眼, 比丘道輝은 전작이나 후작이 없고 豐谷義法는 <수국사 괘불도(1908)>를 그렸다.

40) 최엽, 「근대 화승 고산당 축연의 불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6쪽

41) 최엽, 「한국 근대기의 불화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78쪽.

42) 豐壤趙氏宗親會, 『남양주 견성암 조사보고서』, 2021. 52쪽.



그림 13. <견성암 아미타여래회도>, 1882, 면본채색, 세로 163cm, 가로 211cm, 남양주 견성암 대웅전.

김씨(慶嬪 金氏 1831-1907)와 그녀의 동생 김훈현으로 왕실 관련 인물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왕이 좌상으로 그려진 도상은 <예천 서악사 석가여래회도(1770)>에서 처음 선보였고, 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은 <표충사 서래각 아미타여래회도(1861)>에 그려진 것이 최초이다. 변형된 형태로 그려진 사천왕의 모습은 19세기 후반 수도권의 불화에서도 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울과 경기지역 여래회도에서 대칭구도를 이루며 반가부좌하고 있는 형태의 협시보살은 <내원사 노전 석가여래회도(1801)>에서 초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금곡 영환이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치성광여래회도(1886)>에 일광과 월광보살을 반가부좌 형태로 그린 이후 이러한 모습으로 협시보살을 묘사한 도상이 공유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sup>43)</sup> 이는 경성양공(京城良工)이라 불리던 수도권지역 화승 사이에서 흥국사 화맥을 이은 영환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sup>44)</sup>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불화의 초 가운데는 견성암 본과 관련을 보이는 그

43) 김미혜, 「남양주 흥국사 불화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81-82쪽.

44) 김경미, 「금곡 영환 작 봉원사 약사여래회도 연구」, 『한국학연구』 75, 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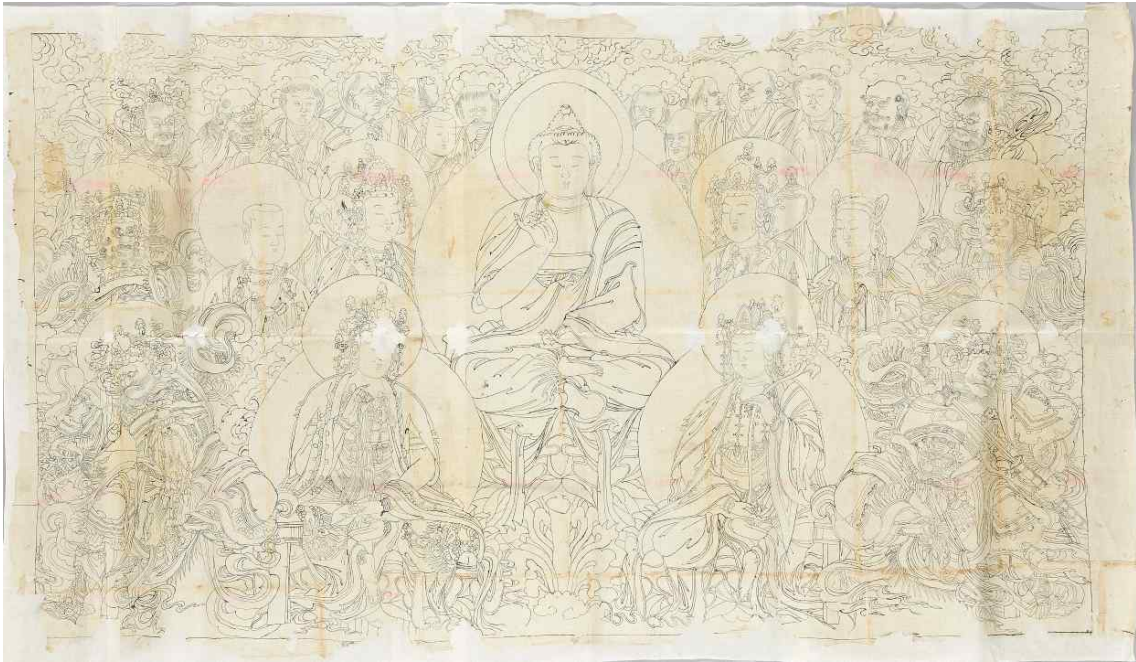


그림 14. <아미타여래회도 초본>, 19~20세기, 지본수묵, 세로 139.0cm, 가로 240cm, 작자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림이 있다.<그림 14> 화면 상부 성중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화면 하부에서 솟아 오른 연화대좌에 앉은 여래와 반가부좌 형태의 협시보살, 화면 밖을 보던 한 무릎을 꿇고 앉은 사천왕 2구 등은 견성암 본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불화 초와 유사한 화면구성을 보이는 작품들이 양주 청련사와 서울 흥천사, 서울 성북구 미타사, 안성 청원사 등에 조성되어 있다.<sup>45)</sup>

그림을 그린 화승들은 대부분 금곡 영환과 경선 응석 등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불사에 동참했던 화승들이다. 견성암 본의 수화승을 맡았던 봉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으로 그 역시 경선 응석, 화산 재근 등과 함께 불사에 동참한 경력이 있다.<sup>46)</sup> 기록에 의하면 1890년대 후반 남양주 흥국사는 많은 화승이 주석하고 있었다.<sup>47)</sup> 그들과 화맥을 같이 했던 봉간 역시 화승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던 여래회도 도상을 재구성하여 견성암 본의 화면구성을 하고 있다. 공법이 봉간의 견성암 본 도상을 공유하여 사자암 본의 화면을 구성한 까닭도 두 화승의 화맥이 흥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법과 봉

45) 풍양조씨종친회, 앞의 책, 52쪽.

46)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2011, 1198쪽. 19세기 후반 혜고라는 당호(堂號)를 사용하는 화승은 봉간과 봉감, 엽주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기가 겹치지 않아 이들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47) 晩悟生, <楊州各寺巡禮記>, 『佛敎』, 제32호(1927),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30 여년 전 덕절(흥국사)은 화원이 많은 것으로 이름이 났는데 현재는 사미승 한명도 볼 수 없다고 기록함.



그림 15.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 1897년, 면본채색, 세로 146cm, 가로 231cm, 미타사 칠성각.

간이 함께 조성한 불화는 <봉원사 삼장보살도(1905)>, <불암사 신중도(1907)> 등으로 사자암 본 조성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도 흥국사 화맥의 인연을 따라 교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법과 윤익은 사자암 불사 이후 조선 말기 문신이자 권문세가였던 민두호와 민영휘 일가의 시주를 받아 옥수동 미타사 칠성각 불화를 조성하였다.<sup>48)</sup> 그 가운데 아미타여래회 도상은 영환이 그린 경기도 <운수암 아미타여래회도(1873)>의 도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불화들도 공유되던 도상으로 그림을 구성하는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sup>49)</sup> <그림 15> 미타사 칠성각 본의 도상은 이후 목아박물관 소장본과 경북 금릉 청암사 본, 경국사 본 등 후배 화승들에게 전승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타사 칠성각 불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법과 윤익이 그린 종남산 <미타사 약사전 아미타여래회도(1901); 석불사 소장>는 견성암과 사자암 본의 화면을 구성했던 도상을 변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금법과 윤익은 19세기 말 수도권에서 유행하던 제작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8) 정진희, 「미타사 칠성각의 불화」, 『미타사 성보문화재 조사보고서』, 2020, 284쪽.

49) 김경미,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 『미타사 성보문화재 조사보고서』, 2020, 288-289쪽.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에서 특이한 모티프는 불단 앞에 드리워진 탁의(卓衣)로 일반적으로 불화의 대좌에 표현에서 보기 드문 모티프이다.



그림 16.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 1899, 면본채색, 세로 159cm, 가로 143.5cm, 칠성각 요사.



그림 17. 미타사 약사전 신중도, 1901, 면본채색, 세로 123cm 가로 134.8cm, 마포 석불사 설법전

19세기 후반 수도권에서 조성된 신중도는 화승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았던 <봉원사 신중도(1844)> 또는 응석이 출초한 <강화 보문사 신중도(1867)> 도상을 전형(典型)으로 해 변용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공법과 윤익이 제작한 <옥수동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1899)>와 <옥수동 미타사 약사전 신중도(1901)>의 도상도 그 범주를 따르고 있다.<그림 16, 17> 반면 범화 윤익이 금어로 처음 조성한 <중대 사자암 신중도>는 공유되던 신중도상이 아닌 이봉당 중린(尼峯 仲麟)이 수화승으로 축연과 공법이 함께 작업했던 <강화 백련사 신중도(1888)>의 도상을 축소 변용한 형태이다.

백련사 본의 화면을 보면 하단에는 8부중을 일렬로 배치하고 상단에는 위태천과 범천을 비롯한 천부의 신중을 그렸다. 두 손을 합장하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위태천의 팔 위에는 금강저가 올려져 있고 그 좌우 합장한 모습의 범천과 제석천이 몸을 중앙으로 튼 자세로 두광을 겸비한 형태이다. 백련사 본은 일반적인 신중도보다 가로가 긴 화면의 형태를 따라 인물의 배치를 상하로 나누어 일렬로 길게 펼친 구성을 보인다.<그림 18>

축연이 출초를 한 백련사 본 화면 하단 향 좌측 가장자리 2구의 무장형 인물은 지물의 형태와 무기를 들지 않은 손의 모양 등에서 <중대 사자암 신중도>와 유사성을 보인다. 맞은편 향 우측 2구 역시 동일한 성격으로 백련사 본의 무장형 인물의 형태를 채택해 사자암 신중도에 표현해 놓았다. 응륜은 화면 중단 영지버섯을 가진 산왕과 조복차림의 일월관을 착용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백련사 본에



그림 18. <백련사 극락전 신중도>, 1888, 면본채색, 세로 145.7cm, 가로 221.5. 강화 백련사

서 변화를 주는 다양성을 화면에 구현하고 있다.

강화 <백련사 신중도>는 축연이 출초하고 공법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였다. 공법은 백련사의 치성광여래회도 제작도 함께했는데 이 불화의 초는 축연과 함께



그림 19. 사자암과 백련사 신중도의 세부형태 비교.

그렸던 수원 <봉림사 치성광여래회도>의 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법과 축연의 화연관계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련사 본과 <중대 사자암 신중도>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사자암 본의 제작에 축연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

았지만 그와 함께 백련사 본을 제작했던 공법이 동참화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 윤익이 백련사 본을 범본으로 축소 변용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I. 맺음말

오대산 중대 사자암은 태조 이성계가 발원하여 재건한 왕실 원당이다. 1894년 사자암 향각에 봉안된 <중대 사자암 아미타여래회도>와 <중대 사자암 신중도>는 도상적인 측면에서 19세기 말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화승들 사이에 공유되던 불화 도상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시대양식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시기 불화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다양성이 도상의 시대적 특징으로 이전 시대의 화면구성을 계승하여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에 따라 다른 도상에서 모티프를 차용하여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는데 사자암 불화의 도상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남양주 흥국사의 승려인 제암 응하가 화주를 맡고 경성양공으로 활동했던 보암 공법과 범화 윤익이 금어가 되어 제작한 사자암 불화는 강원 지역에서 흔히 알려진 왕실발원 불화였다. 이 작품들은 화기에 따르면 모연(募緣)에서부터 제작하는 화승까지 경성에서 조달된 형태를 띠고 있다. 조선 말기 왕실 발원 불화가 봉안된 사찰은 예전부터 원당으로 지정되었던 사찰이거나 또는 당대에 원당으로 지정되어 크게 중수한 절들이다. 1878년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증건은 병상에 있던 철인왕후 김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승려 혜은이 화주가 되어 상궁의 시주를 받아 진행되었다. 1894년 불상의 중수와 불화의 조성은 만으로 20세가 되는 세자의 축수를 위해 역시 상궁이 시주하고 응하가 화주로 제작을 지원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화공도 경성양공이 내려와 조성한 불사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자암 불화의 제작에 화주로 참여한 제암응하는 기허당 탄학의 손제자로 편양언기 문중 출신인 환성 지안으로부터 이어온 법맥을 따르는 승려이다. 그가 오대산 사자암 불사를 지원했던 까닭은 같은 문중의 승려들이 동문으로서 서로의 불사를 도왔던 조선 후기 형태를 따랐기 때문이다. 반면 제작자로서 직접 그림을 그린 화승의 경우는 선맥과 법맥의 범주를 넘어 흥국사 화승들과의 화연으로 맺어진 화맥을 따르는 화승들이었다. 사자암 비로자나불의 중수를 담당했던 축연은 불화의 제작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사자암 신중도>의 도상은 축연이 출초했던 <강화 백련사 신중도>의 도상을 축소하고 변용해 구성하고 있다. 이는 같이 불사에 참여한 화연(畵緣)이 도상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 불화는 같은 문중 출신의 승려에 의한 주도로 같은 화맥을 따르는 공법과 운익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근대기 불화 제작 특징적인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사자암 중대 석가여래회도〉와 〈사자암 중대 신중도〉는 근대기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과 사자암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원당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근대기 왕실과 불교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더불어 근대기라는 전환기의 시대양식을 통해 강원지역 불화의 특징적인 제작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사자암에서 조성된 불화 2점은 큰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五臺山事蹟記』

『陽村集』

『東文選』

『조선사찰사료』

만오생, 〈楊州各寺巡禮記〉, 『佛敎』, 제32호

김창엽, 『三淵集』, 〈오대산기〉

송광연, 『泛虛亭集』

윤선거, 『魯西遺稿』

豐壤趙氏宗親會, 『남양주 견성암 조사보고서』, 2021.

월정사박물관, 『월정사 적멸보궁 학술조사 보고서』, 2016,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강원도, 2002,

강삼혜,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제10호, 2023.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 華潭 門中の 畵僧」, 『동악미술사학』 5호, 2004.

김경미, 「금곡 영환 작 봉원사 약사여래회도 연구」, 『한국학연구』 75, 2020.

김경미,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 『미타사 성보문화재 조사보고서』, 2020.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大方廣佛華嚴經疏』 간행과 승려 문파의 상관성 : 사녕 용복사와 순천 송광사 간행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9.

김미혜, 「남양주 흥국사 불화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성순, 「조선 왕실 불교의례에 나타나는 ‘수월도량공화불사」, 『한마음연구』 제11집, 2023.

김재영, 「근대 신중도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18.

- 김현중, 「朝鮮時代 神衆圖 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유경희, 「조선 말기 왕실발원불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유경희, 「종남산 미타사 극락전 불화를 통해본 19세기 원당의 불화」, 『강좌미술사』 59호, 2022.
- 유근자, 「화계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시주자」, 『한국불교사연구』 4권, 2014.
- 이용윤, 「조선 후기 전라도 수화승의 화맥과 법맥」, 『동악미술사학』 34권, 2023.
- 이종수·허상호, 「17~18세기 불화의 〈화기〉 분석과 용어 고찰」, 『불교미술』 21호, 2010
- 이원석,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한국불교학』 제67집, 2013.
- 정진희, 「미타사 칠성각의 불화」, 『미타사 정보문화재 조사보고서』, 2020,
- 정진희, 「중봉당 혜호의 작품과 화맥연구」, 『선문화연구』 30집, 2021,
- 정진희, 「기록으로 살펴본 조선 후기의 어산-불화와 불상 조성기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제14호, 2023.
- 최엽, 「근대 화승 고산당 축연의 불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엽, 「한국 근대기의 불화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황아라, 「조선시대 아미타설법도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탁효경,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 20집, 2022.

## 「오대산 중대 사자암 불교회화 연구」 토론문

김경미(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월정사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와 〈신중도〉는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香閣)에 봉안하기 위해 1894년에 조성된 불화입니다. 이 불화의 조성 배경을 순종 황제가 세자이던 만 20세가 되는 시기에 축수를 기원하며 왕실 발원으로 밝힌 내용은 강원도에 서울·경기 지역 불화 화풍의 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의로 생각됩니다. 이 두 불화의 수화승은 각각 보암 공법과 범화 윤익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활동한 불화승으로, 이 두 작품은 그들이 불화승으로서 역량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귀중한 작품입니다. 이들은 이 두 작품을 수화승으로 작업한 후,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서울 성동구 미타사의 불화 제작에서도 수화승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화승으로 첫 작업을 한 월정사 불사 이후, 그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수화승으로 인정받으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암 공법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인 〈오대산 월정사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에서 석가여래의 광배를 금박으로 메우는 방법을 사용한 후, 그 해 4월에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배를 금박으로 장식하고 연화줄기좌에 반가좌 형식의 좌우 협시보살을 배치하는 형식은 19세기 말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크게 유행한 방식입니다. 광배를 금박으로 장식하는 기법은 금곡 영환이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전시킨 기법입니다. 이때 함께 조성된 〈월정사 중대 사자암 신중도〉는 수화승 범화 윤익(梵化 潤益)과 함께 보암 공법(普庵 肯法), 성민(性敏)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들 작품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유행한 화풍을 강원도 지역에서 반영한 불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월정사 중대 사자암 불화에 대한 연구에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1. 석가여래회도와 아미타여래회도의 수인 혼용

오대산 중대 사자암 불화 가운데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는 화기에 존명이 확인되지 않지만, 비로자나불상의 후불도로 봉안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삼신불 구성에서 석가여래로 보고, 석가여래회도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화기에 보면 1894년 당시 2월 10일에 제작을 시작해서 2월 16일에 불화를 점안하여 단 6일 만에 조성하여 중대 향각에 봉안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화승의 대단한 역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불화의 구도는 〈남양주 견성암 아미타여래회도〉(1882)와 매우 유사한 도상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대 사자암 신중도〉(1894)는 도상적으로 〈강화 백련사 신중도〉(1888)의 도상을 변용한 것으로 모두 서울·경기지역의 화풍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에 인용된 불화를 보면, 석가여래회도의 도상임에도 〈남양주 견성암 아미타여래회도〉(1882)와 같은 아미타여래의 수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대로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1897)처럼 아미타여래가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상과 수인이 혼돈을 일으키는 현상이 19세기 불화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서울 출신 화주와 화승의 지방 참여

〈월정사 중대 사자암 석가여래회도〉는 남양주 흥국사의 승려 제암 응하가 화주를 맡고, 경성 양공으로 활동한 보암 공법과 범화 윤익이 금어로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드물게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였습니다. 1894년, 불상의 중수와 불화의 조성은 상궁이 시주하고, 응하가 화주로서 제작을 지원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 범화 윤익과 보암 공법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궁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승려가 지방 사찰 불사에 지원한 것이라 설명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모연 활동을 하는 승려가 불사를 주관하는 사찰과 법맥을 통해 연계된 제작 배경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에 불사 모연 활동을 주도한 화주 제암 응하와 중대 사자암의 당시 승려들과의 법맥 안에서 살펴보면, 화주 응하와 〈적멸보궁중창기문〉(1878)을 쓴 용악 보위가 화악 지탁과 연계된 같은 문중으로 그 연계성을 규명하셨습니다.

서울 지역 승려가 지방의 불사를 담당한 사례는 1884년 예천 용문사 불사에

서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불사에서는 화승이나 조각승을 명성에 따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화주는 대개 지역 사찰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는 얼마나 확인이 됩니까? 만약 이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 중앙 사찰 승려와 지방 사찰의 승려 간의 법맥이나 화맥들 통해 같은 문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 3. 화승 축연의 영향 관계

본 연구 발표문 20쪽에서는 ‘혜산당 축연(惠山 竺衍)을 사자암 불화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소개하였습니다.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 중수 발원문>에 따르면, 1894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작업에는 불화를 그린 보암 금법이 금어로 참여하였으며, 혜산 축연과 범화윤의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축연은 1894년 금법과 함께 그린 <월정사 산신도>를 제작한 후, 1905년 부산 범어사 나한전 영산회상도와 괘불도 조성까지는 축연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는 1908년에 있었던 중대 사자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개금의 <발원문>에서 축연이 ‘신사 혜산(信士 蕙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점을 들어, 축연과 사자암의 인연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축연이 많은 작품 활동을 전국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가 사자암 불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불화 기법 측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